

대한건축학회 새 회장에 서울대 이광노교수 선출 198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건축학회는 지난 달26일 (토)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198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발표회에는 1986년도 정기총회도 겸하여 열렸는데, 임기 만료된 김진일회장 후임에 서울대학교 이광노교수가 새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호로 통권 11집이 되는 논문집발간과 함께 열린 이번 정기총회 결과, '다년간 학회발전에 또는 건축계에 끼친 공적이 특히 탁월한 자'에 수여하는 「공로상」에는 지난해 11월30일에 타계한 성균관대 고 윤일주교수에게 수여되었다. 그리고 「작품상」에는 이정덕 고려대 교수, 「학술상」에는 오창희 한양대교수와 김성곤 동아대 교수가 수상하였다. 또, 「기술상」에는 (주)한양의 박인호씨, 「특별상」인 남파(박학재)상에는 문화재연구소 소장인 김정기씨가 수상했다.

한편, 공로패 수여에는 전 충청지부장인 심호용씨와 부산·경남지부장이었던 서의택씨, 전 전남지부장인 신남수씨가 받았다.

끝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회 장 : 이광노

부 회 장 : 신현식, 박병용, 송종석

참여이사 : 주경재, 유희준, 최춘환, 한규봉, 홍성목, 조창한, 이신환, 이명호, 주남철, 김지태, 김해전

감 사 : 조병기, 채규남

이 사 : 박용환, 유 완, 이민섭, 조철호, 최양근, 노희일, 이현호, 김정기, 이용선, 김선호, 권택진, 조대성, 신국범, 박돈서, 문태섭

■ 지부장 명단

전 남 지 부 지부장 : 이수근

전 북 지 부 지부장 : 박한규

충 청 지 부 지부장 : 박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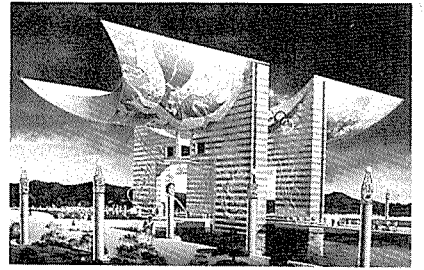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 박춘근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 권영환

제 주 지 부 지부장 : 강은홍

강 원 지 부 지부장 : 박경호

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확정 김중업씨 「올림픽 게이트」



지난 4월 11일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SLOOC)는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조형물 건립 문제를 협의한 끝에 당초 계획대로 김중업씨 작품 「올림픽 게이트」를 올림픽 상징조형물로 건립키로 했다.

SLOOC 위원장 직무대행 박세직씨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의견수렴 결과 올림픽 상징물 건립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하고 건립과정에서 당초예산 70억원보다 다소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은 4월 20일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감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공원내 3만3천6백㎡ 대지위에 세워지는 올림픽 게이트는 높이 45m, 날개길이 75m로, 올림픽 정신의 구상적 표현과 미래 지향적 발전의지 및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기준 대폭완화 대지최소면적, 용적률 재조정

내년부터 주거지역내에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이 현재의 27평에서 18평으로 낮춰지며, 건축물의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축법에 저촉돼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상업·공업용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낮추는 등 그동안 민원대상이 됐던 건축행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축행정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와 용적률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건설부는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평 60㎡ 이하의 주택이나 100㎡ 이하의 축사나 창고는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건축물의 증·개축 때도 현재 30㎡ 이하일 때만 신고로 처리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50㎡까지 신고 사항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을 할 때 조경의무 기준도 완화하였다. 현재 대지면적 1백65㎡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농어촌 주택이나 축사 창고는 대지 규모와 관계없이 조경의무를 면제해 주고 도시 상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이 200㎡이하일 경우 건축주의 자율의식에 맡기기로 했다. 그밖에도 현재 허가사항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도시 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틀위 위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지난 76년 건축법 개정과 함께 10년간 시한부로 허용했던 건폐율 및 대지면적 최소한도 위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한을 없애 앞으로 계속 증·개축이 가능케 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 방안의 실천을 위해 6월말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끝낸후 오는 9월 건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단위전용면적 기준 최소한 20㎡ 이상

지난 3월31일 서울시는 최근 주거를 겸한 사무실(오피스텔) 수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건축기준 없이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는 주거겸용업무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신축되는 오피스텔은 1실당 규모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소한 20㎡(6평)가 넘어야 하고 침실등 주거기능이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주거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채광이 가능해야 한다. 주거기능의 주요소인 온돌 침실, 본격적인 취사시설, 대형욕조 및 서어비스 발코니 설치의 경우 소형 공동주택으로 간주 처리하기로 했다.

일반 사무실 건물보다 주차 수요가 증

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행 150㎡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당 1대로 하고 법정기준보다 추가되는 주차장은 옥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서울고 자리 「경희궁지 공원」 조성 박물관, 미술관 건립 및 가로공원

서울시는 지난 4월12일 「경희궁지 공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88년 6월까지 조성키로 했다.

전체부지 9만8천㎡는 문화재보존지역, 공원시설지역, 완충녹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문화재보존지역은 사적 275호로 지정된 공원 북측 2만8천㎡로 승정전 등 문화재가 복원된다. 공원시설 지역은 공원 남쪽부분 5만9천㎡로 공원 전체의 58%가 된다. 여기에는 동쪽에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이 들어서고 가운데는 놀이마당 등 각종 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광장과 산책로 등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완충 녹지지역은 1만2천㎡로 문화재보존지역과 공원시설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두 지역을 무리없이 연결 하도록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림대를 조성한다. 공원내의 건물 중 상태가 좋은 2동은 시립도서관과 공원관리소로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공원시설 지역과 새문안길 사이의 5천1백㎡를 오는 5월까지 가로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길이 1백80m의 담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대형 버즘나무, 소나무, 감나무 등을 심고 산책로 벤치 40개, 음수대 2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6차 시도경제협의회 60평미만 노후건물 증개축 허용, 네온사인설치 억제

경제기획원은 지난 4월11일 하오 문희갑 차관 주재로 13개 시도부지사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4월1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법시행령 특례규정을 고쳐 지금까지 시한부로 허용해 왔던 대지면적 규모 2백㎡ 미만 노후 건물에 대한 증·개축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또한 상업지역내 증·개축을 허용하는 대지면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

여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 약국, 관광호텔, 터미널 이외지역내 네온사인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선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86,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촉진키 위해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 강화할 계획이다.

안양평촌지구 대규모 택지조성 자연녹지, 절대농지 1백55만9천평

경기도 안양시 평촌지구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택지로 조성할 지역은 안양시 호계, 관양, 평촌동 일원의 자연녹지 57만4천평과 비산, 관양, 평촌동 일대 절대농지 97만5천평 등 모두 1백54만9천평이다.

안양시는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평촌지구의 절대농지 97만5천평은 공영개발 형식으로 자연녹지 57만4천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일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현재 안양시의 연간 인구증가율이 10%로 주택보급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에서 주거용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京水 산업도로의 노폭확장 및 도시기반 시설용지 확보가 시급해진 것도 한 이유가 된다. 한편 京水 산업도로는 폭이 50m이지만 안양시계안의 구간은 노폭이 20.4m 밖에 안돼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양정중고교 내년 목동 이전 시민공원 조성 도서관, 구민회관도 갖춰

서울시는 지난 4월16일 중구 만리동 2가 6의1에 위치한 양정중고교 터 9천1백평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양정중고교가 87년 하반기쯤 목동신개발지로 이전하는대로 공원조성 작업에 착수하여 88년 상반기중에 문을 열 계획이다.